

##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윤성철 02.3771.8754 Saint7@eugenefn.com

### ✓ 전일 동향

달러강세(유로대비)

다우지수 하락

유가(WTI) 하락

- ✓ 품목별 엇갈린 행보 보인 메탈. 전일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추가 긴축 가능성과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며 메탈 가격 하락시킴. 다만, 전일 미 경제지표 개선으로 하락폭이 심화되는 것은 차단됨.
- ✓ 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 가속화. 중국 4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9.8% 성장. 전분기 +9.6와 전년 +9.2% 대비 성장률 가속화. 작년 1차산업 4.3% 성장, 제조업은 12.2%, 서비스업은 9.5% 성장함.
- ✓ 美 실업급여 신청자수 감소. 예상치 하회. 지난 2월이래 최대 감소. 지난주 미국 신규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전주대비 3만7천명 감소한 40만4천명. 예상치 42만명을 하회. 이는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 듯.
- ✓ 골드만삭스 그리스 채권 우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그리스 차입비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리스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 이로 인해 채권 구조조정이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 피치, 유로존 국가들 추가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언급. 전일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더 많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

### ● 전기동

- ✓ LME(3M) 전기동 가격 전일대비 2.30% 하락한 \$9,355. 창고재고량은 전일보다 1,225톤 감소한 380,525톤. Cancelled warrants는 30,925톤.

### ● 알루미늄

- ✓ 中 12월 알루미늄 생산 소폭 감소. 중국의 12월 일간 알루미늄 생산량이 전월대비 소폭 감소에 그쳐. 중국의 12월 일차 알루미늄(보크사이트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생산은 121만 톤을 기록. 동절기 중국의 전력공급 사정 악화 및 11차 5개년 경제계획 달성을 위한 중국 지방정부의 전력소비 절감 노력으로 중국의 12월 알루미늄 생산은 지난 달에 이어 뚜렷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음.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일간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월보다 0.4% 감소에 그친 39,097톤을 기록.

### ● 납, 아연

- ✓ 작년 1~11월 세계 납, 아연 시장 공급초과 기록. ILZSG(International Lead and Zinc Study Group)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11월 세계 정련납 시장이 4만 1,000톤과 정련아연 시장의 22만 3,000톤 공급초과 기록.

## ✓ 금일 전망

- ✓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전일 전기동 하락폭은 우려했던 것보다 큰 듯. 전일 중국의 GDP, PPI, CPI 등의 경제지표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 부각되자. 전기동 하락. 하지만 하락폭 키운 것은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매수 물량을 청산한다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일 듯. 거기에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가 다시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 그러나 중국의 긴축 우려는 과장 해석한 측면이 있는 듯.
- ✓ **우선, 당분간 전일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기 때문.** 전일 하락폭 키운 중국의 매수포지션 청산 물량이 나온 이유는 춘절을 앞두고 필요한 현금수요를 커버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인 듯. 또한 전일 하락재료 작용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 가속화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는 지난주 기준을 인상으로 충분히 커버된 상황. 역으로 현재 중국은 현금 부족 상황. 이로 인해 중국은 최대 명절은 춘절을 앞두고 늘어나고 있는 시중자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단기자금 시장에 최소 500억위안을 투입할 듯. 전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환매조건부매매(Repo)를 통해 기관간 단기자금 시장에 최소 5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고 발표. 이는 중국의 단기자금 금리가 하루 200bp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 이번 급등은 중국의 은행들이 춘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비해 기준율을 높이면서 단기자금금리 상승에 영향준 듯. 결국, 중국의 입장에선 당분간 추가 긴축 정책이 나설 이유가 없을 듯. 단지, 전일 지표결과로 시장을 밀어 저가매수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세력들의 생각일 뿐.
- ✓ **20일선 무너진 전기동.** 어찌됐건 전일 전기동 가격은 급락해 20일 이평까지 깨짐. 지난 수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전기동도 20일 이평 깨지면 단기적으로 하향조정 겪었음. 이번에도 큰 호재 나오지 않는한 상승세 전환은 쉽지 않을 듯. 또, 이미 어느정도 차익실현한 세력들은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가매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 이미 중국말고도 유로존 악재도 터트려 놓은 상황. 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더 밀수 있을 듯. 현재가 저가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해야 할 상황인 듯.
- ✓ **예상레인지: \$9,340~9,450.**

# Base Metals Daily

## ✓ LME Base Metals Price Trend

### ■ 전기동(그림1)



### ■ 알루미늄(그림2)



### ■ 니켈(그림3)



### ■ 납(그림4)



### ■ 주석(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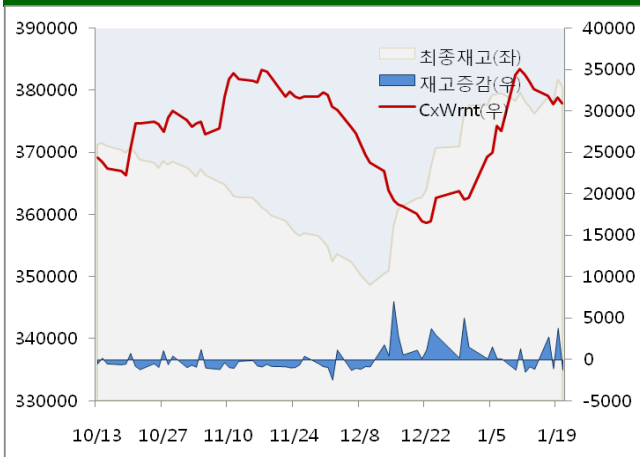
### ■ 아연(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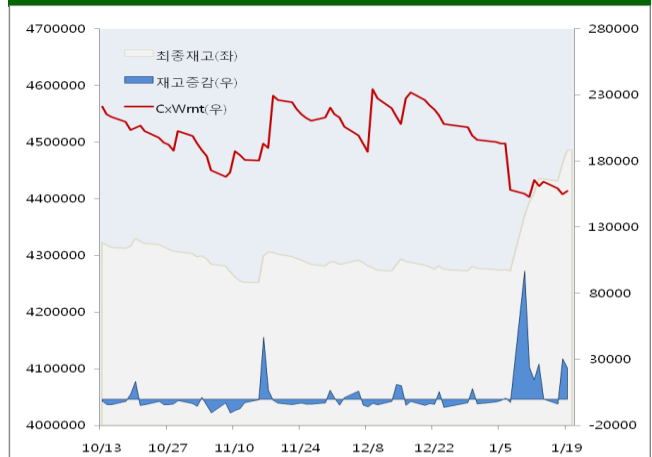
# Base Metals Daily

## ✓ LME 창고 재고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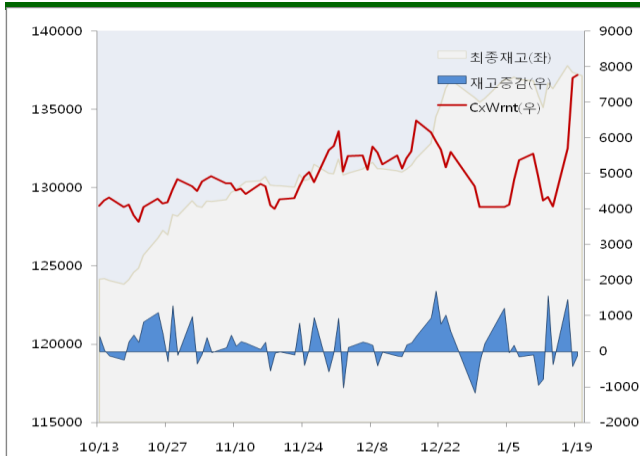
### ■ 전기동(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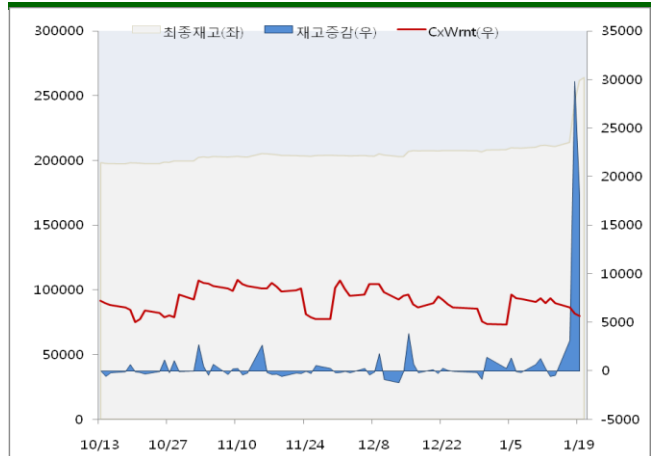
### ■ 알루미늄(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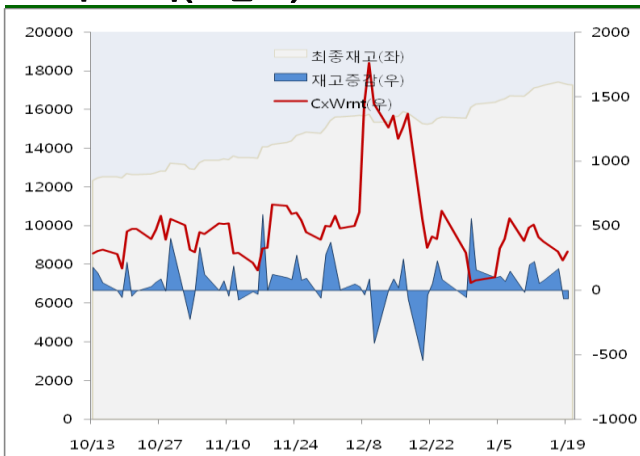
### ■ 니켈(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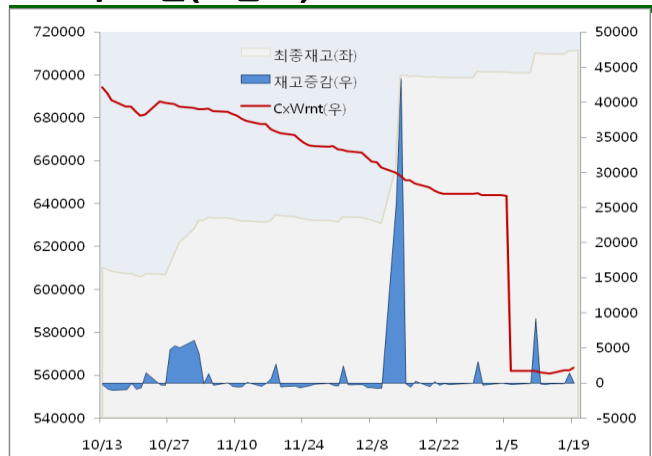
### ■ 납(그림10)



### ■ 주석(그림11)



### ■ 아연(그림12)



## ✓ Base Metals Price

### ■ LME(3M)

LME	전일종가	금 일				변동폭	현물-3개월 스프레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매수	매도
전기동	9575	9580	9628	9281	9355	-2.30%	10	16
알루미늄	2430	2435	2439.75	2374	2408	-0.91%	-25	-23
니켈	25670	25680	25950	25200	25770	0.39%	-24.81	-24
납	2531	2540	2550	2435	2437	-3.71%	44	55
주석	26875	26850	27150	26700	26975	0.37%	30	35
아연	2390	2395	2406	2306.5	2330	-2.51%	-15.5	

### ■ LME(Official)

LME	3개월 선도		현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전기동	9460	9465	9484	9485
알루미늄	2393	2394	2373	2373.5
니켈	25670	25675	25645	25650
납	2480	2481	2480	2481
주석	26950	27000	27100	27200
아연	2346	2347	2332	2334

### ■ SHFE/COMEX

SHFE/COMEX	월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변동폭	거래량
SHFE CU	4월	71690	72150	71330	71730	-0.88%	167976
SHFE AL	4월	16800	16910	16795	16850	-0.15%	19894
SHFE ZN	4월	19070	19255	18975	19120	-0.96%	408066
COMEX CU	3월	435.7	438.9	422.85	427.2	-2.24%	48771

## ✓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

1/21		1/24	
국가	국가	국가	이벤트
US	IFO 기업환경지수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 전송 / 인용 /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